나의 수행법

김기현 (하)

화두참구 이레째,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화두 기운이 폭포 밑에 머물러 있을 때는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가만히 기다리라"고 했다.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은 지루하고 끝이 없는 것 같았다. 언제 나타날지도 모를 그것을 기다리며 시간과 싸우고 있는데, 어느덧 선방에는 나를 포함해 십 오명만 남았다. 남들은 모두 화두공부상의 맛을 보고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나는 아직도 헤매고 있으니. 난 이 공부와 인연이 없는 걸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데 저녁 늦게 쯤 알 수 없는 기운이 솟구쳐 오를 기미가 보였다. 뭉쳐진 화두 기운에 온 힘을 집중하니 온몸과 머리가 심하게 요동쳤다. 화두 의심으로 비롯된 기운과 씨름하기를 수십여 차례. 어느 순간 내게 편안함이 찾아왔다. 아니 앓던 이가 빠지는 통쾌함이라고나 할까? 이것이 화두 공부의 맛이구나 싶었다.

그런데 기숙사로 돌아와 다시 화두를 들어보니 아직도 화두 기운은 폭포 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화두 공부 맛을 조금이라도 보면 천근의 짐을 내려놓듯 맑은 하늘에 벼락 치듯 매미가 허물 벗듯이 시원하고 통쾌하다"고 했는데, 내겐 아직 그런 통쾌함은 없었다. 다시 밤을 세워 정진했지만 더 이상 진전은 없었다.

화두 참구 여드레째, 오후에 스님이 공부점검을 해줬다. 그래서 어제 일어난 현상을 말씀 드렸더니, 좀 더 공부하라고만 했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자기소임을 다하는 것이 용맹이니 다시 한번 용맹을 떨쳐보라", "마지막 관문을 넘는 것은 산모가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힘이 드니, 죽을 각오로 다시 용맹을 떨쳐라. 절대로 죽지 않는다"며 격려해 줬다.

그리고 난 이렇게 생각했다. '오늘도 화두 공부의 맛을 못 보면 올 여름에 계획한 내면으로의 여행은 실패다. 그래 크게 한 번 죽어 보자! 어차피 스님이 참선 중에 잘못되는 일은 없다고 했으니 믿어보자' 라고.

다시 화두 참구에 들어갔다. 화두 의심으로 비롯된 기운을 살피면서 그 기운에 온 힘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힘이 빠지면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힘을 쓰길 몇 번. 그간 날 괴롭혔던 갑갑한 기운이 정수리를 통해 밀려나간다는 생각과 이제는 정말 끝났구나! 하는 확신이 밀려들었다.

뭉친 화두에 힘 모으니 온몸과 머리가 요동
그간 날 괴롭혔던 갑갑한 기운이 빠져나갔다

동시에 갑갑함은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나도 모르게 미소가 떠올랐다. '9일이라는 긴 여행을 마쳤다는 생각', '화두공부를 통해 대자유인으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 는 생각에 가볍게 선방에서 나올 수 있었다.

9일간 간화선체험은 많은 경험을 주었다. 우리 내면에는 불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간화선 체험을 통해서 의심의 여지없이 이를 믿게 됐다. '우리 각자는 미래의 부처님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법당에서 절을 하는 것도 미래의 부처님인 우리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고, 현재 모든 사람은 미래에 부처님이기에 현재의 모든 사람은 위대하고 소중하다' 는 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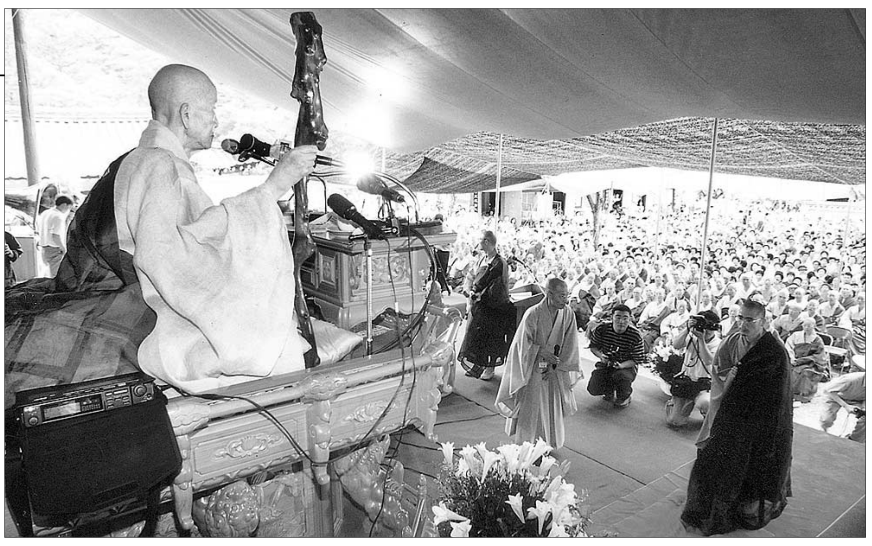
짧은 기간동안 스님의 집중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서 이제 좌복에 앉지 않아도 삶의 현장 곳곳에서 참선을 할 수 있게 됐다.

물질세계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 자신에게 무한한 정신세계가 있음을 알게 돼 기쁘다. (끝)

■변호사

법거량, 그것이 알고 싶다

언어 초월한 깨달음의 상징



지난 2000년 8월 백양사에서 열린 '제2회 무차선법회' 에서 고불총림 방장 서옹 스님과 한 수좌의 법거량 장면.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최근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이 숭산 스님의 49재 법석에서 내린 법어와 현장에서 오간 말들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보기 드문 법거량(法擧量)이 이뤄졌다는 평가와 그렇지 않다는 시각이 팽팽하다.

하지만 백담사 선원장 신용 스님은 "당시 상황은 법거량이 아니었다. 하나의 해프닝이었다. 송담 스님은 숭산 스님이 해온 해외포교의 원력을 역설적으로 찬탄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럼 법거량이란 무엇일까? 이번 논란을 계기로 왜 법거량을 하는지, 한국불교계의 선문답 현실은 어떤지를 진단해본다.

법거량(法擧量), 왜 하는가

인가(認可)를 중시하는 선종, 특히 화두참구로 깨달음을 얻는 간화선 수행전통에서 법거량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수행자의 화두타파 유무, 깨달음의 증득 여부 등을 판단할 기준이 법거량에 있기 때문이다.

법거량은 보통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뤄진다. 제자는 자신의 깨달음의 경계를 드러내고, 스승은 제자의 공부됨됨이를 점검한다. 또 이미 깨달음을 얻은 선사들은 깨친 법을 서로 확인하기도 한다. 그래서 법거량을 일반적으로 '선문답' 이라고 한다.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경계를 드러내고 확인하기에 그렇다.

법거량의 방식은 '즉문즉답(卽問卽答)' 으로 진행된다. 한 치의 양보도, 알음알이도 끼어들 틈 없이 치열하다. '할' (喝;깨우쳐주기 위해 '억!' 하고 큰 소리를 지름)과 '방' (搒;죽비나 손으로 일격을 가해 깨우침을 주는 행위)까지 날린다.

법거량의 이 같은 '파격성' 은 '응병여약(應病與藥)' 의 원리에 있다. 즉 말, 행동, 소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자가 앓고 있는 병(의심)에 맞춰 약(점검)을 주는 것이다. 상대방의 근기에 따라 직지인심의 기연을 제자에게 만들어 주는 것이 법거량의 핵심이다.

법거량이 어려운 이유는?

법거량은 언어를 초월한 깨달음의 상징이다. 해석 그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자유자재한 선의 세계를 문자 또는 말로써 풀어내지 못한다는 의미다.

문답 과정에서 서로의 경계 드러내고 확인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오해 일으키기도

또 법거량이 갖는 특수성에 대한 몰이해도 한 이유다. 이는 깨달은 사람만이 법거량의 참뜻을 알 수 있는 특성을 간과하기에 그렇다. 여기에 행간 의미를 놓고, 논리적인 뜻풀이에 관심을 두려는 점도 같은 요인으로 작용한다.

봉화 각화사 선덕 고우 스님은 "법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법거량을 논리적인 사고 틀에서 알음알이로 이해하면서 오해 또는 곡해를 일으키고 있다"며 "짐작과 분별로써 법거량을 해석하려는 태도를 극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주사 총지선원장 함주 스님도 "법거량은 일종의 법담이다. "있는 그대로 듣고 보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의 가치판단으로 가늠하면 안되는 자리다. 특히 알음알이를 가지고 보면 천리 만리로 멀어진다"고 조언한다.

법거량,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재가불자 간화선 수행모임인 선도회 박영재 지도법사는 "법거량은 일종의 '응용공안' " 이라고 말한다. 즉 법거량은 역대 조사들이 주고받은 공안, 선어록 등의 내용인 만큼, 그것들을 화두 참구하듯 공부하는 것이다.

박 법사는 특히 대기설법을 연원으로 한 법거량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그 한계와 문제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때문에 박 법사는 공부의 깊이를 헤아려 본다는 측면에서 법거량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문한다. 수행이 깊지 못한 사람들이 '왜 마음공부에 미숙했는지' 에 대한 반성조차 화두참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또 이를 통해 수행자는 늘 스스로 여법한 자리에서 법을 올바르게 드러내고 경계나 말에 쫓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시험 · 점검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박 법사는 우선 수행자들은 스승을 부단히 대면하면서 정기적인 입실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래야만 실질적인 실참이 이뤄지고, 궁극적으로는 선교쌍수(禪敎雙修)가 된다는 것이다.

한국불교계, 법거량 전통이 살아 있는가?

대다수의 선사들은 이미 사리진 지 오래라고 입을 모은다. 아니 사실상 끊겼다고 말한다. 물론 백양사 고불총림이 1998년, 2000년, 그리고 부산 해운정사가 2002년에 조사선(祖師禪) 수행 풍토의 선양과 승속의 구별 없이 깨달음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무차선법회를 봉행했지만, 여전히 법거량 전통의 복원을 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불교계 일각에서는 '진정한 고수는 드물고 앵무새만 늘고 있다' 는 지적까지 하고 있다. 간화선이 '의리선' (義理禪:뜻과 이치로만 헤아리는 선)에 빠졌다는 것이다. 때문에 실참 없는 법거량의 위험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원 스님은 "오늘날 한국불교계는 문자선, 의리선, 구두선 등으로 '말길' 로만 선어록을 외는 죽은 법거량을 하고 있다"며 "법거량 전통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말 이전의 소식을 보고 들어 마음자리에 곧장 계합할 수 있는 선문답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대원 스님은 특히 조실 스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행자의 눈을 뜨게 해 줄 명안종사를 길러내야, 법거량 전통이 복원될 수 있다는 것이 대원 스님의 설명이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 어떤 가르침 주나

의심·신심·발심 일으켜 공부 도와

법거량은 수행자에게 화두참구의 필수 조건인 3심(의심, 신심, 발심)을 일으킨다. 스승이 제자에게 발심의 기회, 신심 증대, 의심 해소 등의 기폭제를 준다. 이를 통해 공부의 진척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법거량의 이 같은 가르침은 중국 임제 선사가 스승 황벽 선사에게 맞은 '30방(搒)' 에서도 엿볼 수 있다. 3년을 넘게 공부를 했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자, 임제 선사는 황벽 선사에게 "어떠한 것이 부처입니까?"라고 세 번 찾아가 묻는다. 하지만 족족 30방만을 맞는다. 영문도 모른 채 얻어맞은 임제 선사는 고한의 대우 선사를 찾아 자초지종을 말한다. 그러자 임제 선사는 "황벽이 그렇게 자비스러운 법을 폈다" 는 대우 선사의 말을 듣고, "황벽의 불법도 몇 푼어치 안되는구나!"하고 확철대오한다.

황벽 선사의 30방 법거량은 제자에게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켜줬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봉화 각화사 선덕 고우 스님은 "법거량은 "법의 궁금증을 일으켜 공부하려는 의지를 북돋아줘 조사선 수행점검법의 핵심이 된다"고 말한다.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인모집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 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 시	수 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율.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전현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한국 불교 통신대학. 대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

출가 수행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체교육) 참조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나란다 삼장불학원 학인모집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 2005년 3월 10일 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김진궐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사)한국불교금강선원 나란다 삼장 불학원

전화 02)969-2410 / 969-4981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